

**2027 문학 연계
원문+기출 2권**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p.4
인간 문제	p.10
치속	p.46
나룻배 이야기	p.58
불신 시대	p.60
관부 연락선	p.71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돌니	p.73
해벽	p.80
미망	p.82
눈이 오면	p.85
눈사람 속의 검은 향아리	p.90
꼭두각시놀음	p.93
불모지	p.103
노비 문서	p.131
역마	p.133
꽃 피는 봄이 오면	p.148
호동서락기	p.150
해갑와기	p.152
산촌 여정	p.154
산민 / 합강정가 / 응계설	p.158
계녀가 / 상론	p.162
허균의 문집에 부치는 서문 / 시	p.167
규원가 / 인현황후전	p.170
목동가 / 풍계육가 / 고금군자은현론	p.177
낙원은 가시덤불에서 / 산에 대하여 / 농양시집 서	p.184
박꽃이 피어난 집 / 한데서 울다	p.188
남도 기행 / 한 그루 나무처럼	p.195

참회록 / 녹을 닦으며-공초 14 / 선부 자화상	p.198
멸치 / 버팀목에 대하여 / 뿌리가 꽃이다	p.203
잘 익은 사과 / 강을 따라갔다 돌아왔다 / 길의 안내자들	p.207
황새결승	p.213
만홍 / 장춘정기	p.215
너무 큰 나무	p.225
모든 사라지는 것들은 뒤에 여백을 남긴다 / 사과밭을...	p.228
금환기봉	p.230
산이 날 에워싸고 / 흐름에 대하여 / 한정록 서	p.234
고향	p.236
규수상사곡 / 임 그린 상사몽이	p.241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박태원}

전차 안에서

구보는, 우선, 제 자리를 찾지 못한다. 하나 남았던 좌석은 그보다 바로 한 걸음 먼저 차에 오른 젊은 여인에게 점령당했다. 구보는, 차장대(車掌臺) 가까운 한구석에 가서서, 자기는 대체, 이 동대문행 차를 어디까지 타고 가야 할 것인가를, 대체, 어느 곳에 행복은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

이제 이 차는 동대문을 돌아 경성 운동장 앞으로 해서…… 구보는, 차장대, 운전대로 향한, 안으로 파아란 용을 받쳐 댄 창을 본다. 전차과(電車課)에서는 그곳에 뉴스를 게시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요사이 축구도 야구도 하지 않는 모양이었다.

장충단으로, 청량리로, 혹은 성북동으로…… 그러나 요사이 구보는 교외를 즐기지 않는다. 그곳에는, 하얀 자연이 있었고, 한적(閑寂)이 있었다. 그리고 고독조차 그곳에는, 준비되어 있었다. 요사이, 구보는 고독을 두려워한다.

일찍이 그는 고독을 사랑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고독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심경의 바른 표현이 못 될 게다. 그는 결코 고독을 사랑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아니 도리어 그는 그것을 그지없이 무서워하였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고독과 힘을 겨루어, 결코 그것을 이겨 내지 못하였다. 그런 때 구보는 차라리 고독에게 몸을 떠맡기어 버리고, 그리고, 스스로 자기는 고독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라고 꾸며 왔는지도 모를 일이다…….

표, 짝음쇼, 차장이 그의 앞으로 왔다. 구보는 단장을 왼팔에 걸고,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그러나 그가 그 속에서 다섯 닢의 동전을 골라내었을 때, 차는 종묘 앞에 서고, 그리고 차장은 제자리로 돌아갔다.

구보는 눈을 떨어뜨려, 손바닥 위의 다섯 닢 동전을 본다. 그것들은 공교롭게도 모두가 뒤집혀 있었다. 대정(大正)^{*} 12년, 11년, 11년, 8년, 12년, 대정 54년—구보는 그 숫자에서 어떤 한 개의 의미를 찾아내려 들었다. 그러나 그것은 부질없는 일이었고, 그리고 또 설혹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적어도 ‘행복’은 아니었을 게다.

차장이 다시 그의 옆으로 왔다. 어디를 가십니까. 구보는 전차가 향하여 가는 곳을 바라보며 문득 창경원이라도 갈까, 하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는 차장에겐 아무런 사인도 하지 않았다. 갈 곳을 갖지 않은 사람이, 한번, 차에 몸을 위탁하였을 때, 그는 어디서든 선불리 내릴 수 없다.

차는 서고, 또 움직였다. 구보는 창밖을 내어다보며, 문득, 대학 병원에라도 들를 것을 그랬나, 하여 본다. 연구실에서, 벚은, 정신병을 공부하고 있었다. 그를 찾아가, 좀 다른 세상을 구경하는 것은, 행복은 아니어도, 어떻든 한 개의 일일 수 있다.

(중략)

조그만

한 개의 기쁨을 찾아, ㉠구보는 남대문을 안에서 밖으로 나가 보기로 한다. 그러나 그곳에는 불어 드는 바람도 없이, 양옆에 웅숭그리고 앉아 있는 서너 명의 지게꾼들의 그 모양이 맥없다.

구보는 고독을 느끼고, 사람들 있는 곳으로, 약동하는 무리들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다 생각한다. 그는 눈앞에 [경성역]을 본다. 그곳에는 마땅히 인생이 있을 게다. 이 낡은 서울의 호흡과 또 감정이 있을 게다. 도회의 소설가는 모름지기 이 도회의 향구와 친하여야 한다. 그러나 물론 그러한 직업의식은 어떻든 좋았다. 다만 구보는 고독을 삼등 대합실 군중 속에 피할 수 있으면 그만이다.

그러나 오히려 고독은 그곳에 있었다. 구보가 한옆에 끼여 앉을 수도 없게서리 사람들은 그곳에 뻥뻥하게 모여 있어도, 그들의 누구에게서도 인간 본래의 온정을 찾을 수는 없었다. 그네들은 거의 옆사람에게 한 마디 말을 건네는 일도 없이, 오직 자기네들 사무에 바빴고, 그리고 간혹 말을 건네도, 그것은 자기네가 타고 갈 열차의 시각이나 그러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네들의 동료가 아닌 사람에게 그네들은 변소에 다녀올 동안의 그네들 짐을 부탁하는 일조차 없었다. 남을 결코 믿지 않는 그네들의 눈은 보기에 딱하고 또 가엾었다.

구보는 한구석에 가 서서, 그의 앞에 앉아 있는 노파를 본다. 그는 뉘 집에 드난을 살다가 이제 늙고 또 쇠잔한 몸을 이끌며, 결코 낙낙하지 못한 어느 시골, 딸네 집이라도 찾아가는지 모른다. 이미 굳어 버린 그의 안면 근육은 어떠한 다행한 일에도 퍼질 틈 없고, 그리고 그의 몽롱한 두 눈은 비록 그의 딸의 그지없는 효양(孝養)을 가지고도 감동시킬 수 없을지 모른다. 노파 옆에 앉은 중년의 시골 신사는 그의 시골서 조그만 백화점을 경영하고 있을 게다. 그의 점포에는 마땅히 주단포복도 있고, 일용 잡화도 있고, 또 흔히 쓰이는 약품도 갖추어 있을 게다. 그는 이제 그의 옆에 놓인 물품을 들고 자랑스러이 차에 오를 게다. 구보는 그 시골 신사가 노파와 사이에 되도록 간격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를 업신여겼다. 만약 그에게 열은 지혜와 또 약간의 용기를 주면 그는 삼등 승차권을 주머니 속에 간수하고 일이등 대합실에 오만하게 자리 잡고 앉을 게다.

㉠ 문득 구보는 그의 얼굴에 부종을 발견하고 그의 앞을 떠났다. 신장염. 그뿐 아니라, 구보는 자기 자신의 만성 위 확장을 새삼스러이 생각해 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구보가 매점 옆에까지 갔었을 때, 그는 그곳에서도 역시 병자를 보지 않으면 안 되었다. 사십여 세의 노동자. 전경부(前頸部)의 광범한 팽릉(膨隆). 돌출한 안구. 또 손의 경미한 진동. 분명한 바제도씨병. 그것은 누구에게든 결코 깨끗한 느낌을 주지는 못한다. 그의 좌우에는 좌석이 비어 있어도 사람들은 그곳에 앉으려 들지 않는다. ㉡ 뿐만 아니라, 그에게서 두 칸통 떨어진 곳에 있던 아이 업은 젊은 아낙네가 그의 바스켓 속에서 꺼내다 잘못하여 시멘트 바닥에 떨어뜨린 한 개의 복숭아가 굴러 병자의 발 앞까지 왔을 때, 여인은 그것을 쫓아와 집기를 단념하기조차 하였다.

구보는 이 조그만 사건에 문득, 흥미를 느끼고, 그리고 그의 '대학 노트'를 펴 들었다. 그러나 그가 문 옆에 기대어 섰는 캡 쓰고 린네르 프메에리 양복 입은 사내의, 그 온갖 사람에게 의혹을 갖는 두 눈을 발견하였을 때, 구보는 또다시 우울 속에 그곳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된다.

개찰구 앞에

두 명의 사내가 서 있었다. ㉢ 낡은 파나마에 모시 두루마기 노랑 구두를 신고, 그리고 손에 조그만 보따리 하나도 들지 않은 그들을, 구보는, 확신을 가져 무직자라고 단정한다. 그리고 이 시대의 무직자들은, 거의 다 금광 브로커에 틀림없었다. 구보는 새삼스러이 대합실 안팎을 둘러본다. 그러한 인물들은, 이곳에도 저 곳에도 눈에 띄었다.

황금광 시대(黃金狂時代).

저도 모를 사이에 구보의 입술을 무거운 한숨이 새어 나왔다. 황금을 찾아, 황금을 찾아. 그것도 역시 숨김없는 인생의, 분명히, 일면이다. 그것은 적어도, 한 손에 단장과 또 한 손에 공책을 들고, 목적 없이 거리로 나온 자기보다는 좀 더 진실한 인생이었을지도 모른다. 시내에 산재한 무수한 광무소. 인지도 백 원. 열람비 오 원. 수수료 십 원. 지도대(地圖代) 십팔 전…… 출원 등록된 광구, 조선 전토(全土)의 칠 할. 시시각각으로 사람들은 줄부가 되고, 또 몰락하여 갔다. 황금광 시대. 그들 중에는 평론가와 시인, 이러한 문인들조차 끼여 있었다. 구보는 일찍이 창작을 위하여 그의 벗의 광산에 가 보고 싶다 생각하였다. 사람들의 사행심, 황금의 매력, 그러한 것들을 구보는 보고, 느끼고, 하고 싶었다. 그러나, 고도의 금광열은, 오히려, 총독부 청사, 동측 최고층, 광무과 열람실에서 볼 수 있었다…….

문득 한 사나이가 둥글넓적한, 그리고 또 비속한 얼굴에 웃음을 띠고, 구보 앞에 그의 모양 없는 손을 내민다. 그도 벗이라면 벗이었다. 중학 시대의 열등생. 구보는 그래도 약간 웃음에 가까운 표정을 지어 보이고, 그리고, 단장 든 손을 그대로 내밀어 그의 손을 가장 영성하게 잡았다. 이거 얼마 만이야. 어디, 가나. 응, 자네는.

구보는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 '자네' 소리를 들으면 언제나 불쾌하였다. '해라'는, 해라는 오히려 나왔다. 그 사내는 주머니에서 금시계를 꺼내 보고, 다음에 구보의 얼굴을 쳐다보며, 저기 가서 차라도 안 먹으려나. 전당포 집의 둘째 아들. 구보는 그러한 사내와 자리를 같이하여 차를 마실 생각은 없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 한 개의 구실을 지어, 그 호의를 사절할 수 있도록 구보는 용감하지 못하다. 그 사내는 앞장을 섰다. 자아 그럼 저리로 가지. 그러나 그것은 구보에게만 한 말이 아니었다.

구보는 자기 뒤를 따라오는 한 여성을 보았다. 그가 한번 흘끗 보기에, 한 사내의 애인 된 티가 있었다. 어느 틈엔가 이런 자도 연애를 하는 시대가 왔다. 새삼스러이 그 천한 얼굴이 쳐다보였으나, 그러나 서정시인조차 황금광으로 나서는 때다.

의자에 가 가장 자신 있게 앉아, 그는 주문 들으러 온 소녀에게, 나는 가루빼스, 그리고 구보를 향하여, 자네두 그걸루 하지. 그러나 구보는 거의 황급하게 고개를 흔들고, 나는 홍차나 커피로 하지.

음료 칼피스를, 구보는 좋아하지 않는다. 그것은 외설한 색채를 갖는다. 또, 그 맛은 결코 그의 미각에 맞지 않았다. 구보는 차를 마시며, 문득, 깍다점(喫茶店)*에서 사람들이 취하는 음료를 가져, 그들의 성격, 교양, 취미를 어느 정도까지는 알 수 있을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여 본다. 그리고 그것은 동시에, 그네들의 그때, 그때의 기분조차 표현하고 있을 게다.

㉔ 구보는 맛은편에 앉은 사내의, 그 교양 없는 이야기에 건성 맛장구를 치며, 언제든 그러한 것을 연구하여 보리라 생각한다.

— 박태원,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 대정: 일본 다이쇼 천황 시대의 연호(年號).

* 깍다점: 예전에 '찻집'을 이르던 말.

◀ 보기 ▶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의 주인공 구보는 식민지 지식인의 울적하고 무기력한 내면을 잘 보여주는 인물로, 작가 박태원의 분신으로 알려져 있다. 아들의 결혼과 취업을 걱정하는 어머니를 두고 집을 나선 구보는 경성(서울)을 산책자처럼 배회하는 과정에서 상이한 두 가지 태도를 보여 주는데, 그 하나는 어머니의 바람대로 남들처럼 평범한 일상을 영위하는 세속적 행복에 대한 탐색이고, 다른 하나는 세속적 행복을 좇는 일상의 속물적 근성에 대한 염증이다.

[15~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구보는, 약간 자신이 있는 듯싶은 걸음걸이로 전차 선로를 두 번 횡단하여 화신상회 앞으로 간다. 그리고 저도 모를 사이에 그의 발은 백화점 안으로 들어서기조차 하였다. 젊은 내외가, 너댓 살 되어 보이는 아이를 데리고 그곳에 가 승강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그들은 식당으로 가서 그들의 오찬을 즐길 것이다. 흘끗 구보를 본 그들 내외의 눈에는 자기네들의 행복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 엿보였는지도 모른다. 구보는, 그들을 업신여겨 볼까 하다가, 문득 생각을 고쳐, 그들을 축복하여 주려 하였다. 사실, 4, 5년 이상을 같이 살아왔으면서도, 오히려 새로운 기쁨을 가져 이렇게 거리로 나온 젊은 부부는 구보에게 좀 다른 의미로서의 부러움을 느끼게 하였는지도 모른다. 그들은 분명히 가정을 가졌고,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당연히 그들의 행복을 찾을게다.

승강기가 내려와 서고, 문이 열려지고, 닫혀지고, 그리고 젊은 내외는 수남이나 복동이나 더불어 구보의 시야를 벗어났다.

구보는 다시 밖으로 나오며, 자기는 어디 가 행복을 찾을까 생각한다. 발 가는 대로, 그는 어느 틈엔가 안전지대에 가 서서, 자기의 두 손을 내려다보았다. 한 손의 단장과 또 한 손의 공책과-물론 구보는 거기에서 행복을 찾을 수는 없다.

안전지대 위에, 사람들은 서서 전차를 기다린다. 그들 ㉡ 에게, 행복은 알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갈 곳만은 가지고 있었다.

전차가 왔다. 사람들은 내리고 또 탔다. 구보는 잠깐 머뭇하니 그곳에 서 있었다. 그러나 자기와 더불어 그곳에 있던 온갖 사람들이 모두 저 차에 오르는 것을 보았을 때, 그는 저 혼자 그곳에 남아 있는 것에 외로움과 애달픔을 맛본다.

< 중략 >

구보는 고독을 느끼고, 사람들 있는 곳으로, 약동하는 무리들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다 생각한다. 그는 눈앞에 경성역을 본다. 그곳에는 마땅히 인생이 있을 게다. 이 낡은 서울의 호흡과 또 감정이 있을 게다. 도회의 소설가는 모름지기 이 도회의 항구와 친하여야 한다. 그러나 물론 그러한 직업 의식은 어떤든 좋았다. 다만 구보는 고독을 삼등 대합실 군중 속에 피할 수 있으면 그만이다. 그러나 오히려 고독은 그곳에 있었다. 구보가 한 옆에 끼여 앉을 수도 없게서리 사람들은 그곳에 뻑뻑하게 모여 있어도, 그들의 누구에게서도 인간 본연의 온정을 찾을 수는 없었다. 그네들은 거의 옆의 사람에게 한마디 말을 건네는 일도 없이, 오직 자기네들 사무에 바빴고, 그리고 간혹 말을 건네도, 그것은 자기네가 타고 갈 열차의 시각이나 그러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네들의 동료가 아닌 사람에게 그네들은 변소에 다녀올 동안의 그네들 짐을 부탁하는 일조차 없었다. 남을 결코 믿지 않는 그네들의 눈은 보기에 딱하고 또 가없었다.

구보는 한구석에 가 서서 그의 앞에 앉아 있는 노파를 본다. 그는 뉘 집에 드난을 살다가 이제 늙고 또 쇠잔한 몸을 이끌어 결코 녀석하지 못한 어느 시골, 딸네 집이라도 찾아가는지 모른다. 이미 굳어 버린 그의 안면 근육은 어떠한 다행한 일에도 퍼질 틈 없고, 그리고 그의 몽롱한 두 눈은 비록 그의 딸의 그 지없는 효양(孝養)을 가지고도 감동시킬 수 없을지 모른다. 노파 옆에 앉은 중년의 시골 신사는 그의 시골서 조그만 백화점을 경영하고 있을 게다. 그의 점포에는 마땅히 주단포복도 있고, 일용 잡화도 있고, 또 흔히 쓰이는 약품도 갖추어 있을 게다. 그는 이제 그의 옆에 놓인 물품을 들고 자랑스러이 차에 오를 게다.

구보는 그 시골 신사가 노파와의 사이에 되도록 간격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를 업신여겼다. 만약 그에게 얕은 지혜와 또 약간의 용기를 주면 그는 삼등 승차권을 주머니 속에 간수하고 일, 이등 대합실에 오만하게 자리잡고 앉을 게다.

문득 구보는 그의 얼굴에서 부종(浮腫)을 발견하고 그의 앞을 떠났다. 신장염. 그뿐 아니라, 구보는 자기 자신의 만성 위확장을 새삼스러이 생각해 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구보가 매점 옆에까지 갔었을 때, 그는 그곳에서도 역시 병자를 보지 않으면 안 되었다. 40여 세의 노동자. 전경부(前頸部)의 광범한 팽릉(膨隆). 돌출한 안구. 또 손의 경미한 진동. 분명한 '바세도

우씨'병. 그것은 누구에게든 결코 깨끗한 느낌을 주지는 못한다. 그의 좌우에는 좌석이 비어 있어도 사람들은 그곳에 앉으려 들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서 두 칸통 떨어진 곳에 있던 아이 업은 젊은 아낙네가 그의 바스켓 속에서 꺼내다 잘못하여 시멘트 바닥에 떨어뜨린 한 개의 복숭아가, 굴러 병자의 발 앞에까지 왔을 때, 여인은 그것을 쫓아와 집기를 단념하기조차 하였다.

구보는 이 조그만 사건에 문득, 흥미를 느끼고, 그리고 그의 ㉢ '대학노트'를 펴 들었다. 그러나 그가, 문 옆에 기대어 섰는 캡 쓰고 린네르 즈메에리 양복 입은 사나이의, 그 온갖 사람에게 의혹을 갖는 두 눈을 발견하였을 때, 구보는 또 다시 우물 속에 그곳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된다.

- 박태원,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

15. <보기>처럼 위 글의 작가와 대답을 한다고 할 때,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사회자 : 상당히 인상 깊은 소설이었습니다. 여러 풍경이 나오는데요, 어떤 것을 표현하고 싶으셨나요?

작 가 : _____

- ① 도시 문명의 여러 측면들을 분석적으로 보여 주고 싶었습니다. 문명의 이기들이 인간의 삶을 억압한다는 것을 고발하려고 했지요.
- ② 주로 묘사된 풍경들은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것들이지요. 작고 소박한 것이 아름답다는 인생의 진리를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 ③ 피폐한 도시 풍경과 역동적인 삶의 모습을 대비하려고 했습니다. 현실의 비극을 초월하여 살아가고 싶은 소망을 담아내고 싶었습니다.
- ④ 도시의 풍경과 군상들을 눈에 보이는 대로 관찰하고 기록하려고 했습니다. 그 속에 우리 삶의 진실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 ⑤ 다양한 사람들을 등장시키고 싶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심층 심리를 분석하면 인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16. <보기>와 관련지어 위 글에 대한 감상을 말한 것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보 기> —

1930년대의 경성은 식민지 사회가 근대화되는 과정에서 파생되는 모순을 잘 보여준다. 도시 문명이 자리 잡으면서 근대 도시의 면모를 갖추어가고 있지만, 실상 사람들은 궁핍과 좌절의 상태에 있었고 지식인들은 심한 무력감에 빠져 있었다.

- ① 종로 거리의 전차나 철도 등은 근대 도시로서의 면모와 관련지어 볼 수 있겠구나.
- ② 구보의 거리 방향과 고독감은 당대 지식인의 정신적 무력감과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겠군.
- ③ 근대적 모습의 경성역과 그 곳 사람들의 모습은 이러한 시대적 모순을 잘 보여 주는 것이로군.
- ④ 백화점에 나들이 나온 행복한 가족의 모습을 통해 식민지 사회의 변화 조짐을 보여 주고 있구나.
- ⑤ 구보의 눈에 띈 많은 사람들이 피로에 젖은 사람들로 묘사된 것은 이러한 시대적 맥락과도 연결되는구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17. ㉞에 나타난 '구보'의 심정과 유사한 정서를 담고 있는 것은?

- ① 도망군이 짐싸가지고 술밭길을 빠지듯 / 야반(夜半) 국경의 들길을 달리는 이 괴물이어! // 차창밖 하늘은 내 답답한 마음을 달렸느냐
- ② 공허한 군중의 행렬에 섞이어 / 내 어디서 그리 무거운 비애를 지고 왔기에 / 길-게 늘인 그림자 이다지 어두워 // 내 어디로 어떻게 가라는 슬픈 신호기 /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비인 하늘에 걸리어 있다.
- ③ 버리고 가는 이도 못 잊는 마음 / 쫓겨가는 마음인들 무어 다들거냐. / 돌아다보는 구름에는 바람이 희살짓는다 / 앞대일 언덕인들 마련이나 있을거냐.
- ④ 이른 아침 길가에 오가는 / 튼튼한 젊은이들, 어린 학생들, 그들의 / 공 던지는 날랜 손발, 책보 낀 여생도의 힘있는 두 팔 / 그들의 빛나는 얼굴, 활기 있는 걸음걸이
- ⑤ 어둠의 나라 땅 밑에 번드시 누워 / 흙물 달개 빨고 마시다가 / 비오는 날이면 땅위에 거어나와 / 갈 곳도 없는 길을 헤매노니 // 어느 거친 발길에 채이고 밟혀 / 몸이 으스러지고 두 도막에 찰려도 / 붉은 피 흘리며 흘리며 나는야 / 아프고 저런 가슴을 뒤틀며 사노라

18. <보기>는 ㉞에 대해 탐구 학습하면서 알게 된 내용이다. 이를 참고할 때, 밑줄 친 단어 중 띄어쓰기가 잘못된 것은? [1점]

— <보 기> —

접두사는 어근(語根)의 앞에 붙어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기능을 한다. ㉞의 '엣-'은 접두사로서 '엣보다', '엣들다' 등 일부 동사에서만 쓰인다. 일부 접두사의 경우 관형사와 혼동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접두사는 결합이 제한적인 반면에, 관형사는 결합의 범위가 훨씬 광범위하다는 점이 다르다. 접두사는 붙여쓰고 관형사는 띄어 쓴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일상 생활에서의 띄어쓰기의 어려움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

- ① 날이 더워 흙이불만 덮었다.
- ② 새옷을 입으니 기분이 좋다.
- ③ 균식구가 더 늘어난 셈이었다.
- ④ 그의 노력은 헛수고로 끝났다.
- ⑤ 맨손으로 싸워서 적을 물리쳤다.

19. <보기>가 ㉞에 적힌 구보의 기록이라고 할 때,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 야낙네의 행동
- 그 이유와 의미를 인간의 본성과 관련지어 보면?
- 오늘날의 어떤 세태를 반영하는 것일까?
⇒ _____

- ① 인간의 무지함이 초래하는 어리석은 행동이다. 과연 그 여인의 염려대로 그 병이 전염되는 것인가?
- ② 불쌍한 사람에 대한 동정일 것이다. 그 여인에게로는 별것 아닌 물건이 그 노동자에게는 소중한게 쓰였을 것이다.
- ③ 불결한 것을 피하려는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이다. 쾌적한 삶의 환경을 추구하면서 인간의 문화는 발전하는 법이다.
- ④ 타인에 대해 무관심한 인간의 본성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자신이 지닌 것에 대해서도 큰 애착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겠다.
- ⑤ 혐오스러운 것을 피하려는 심리이자 일종의 자기 보호 본능인 셈이다. 자기에게 피해가 될 존재들과 얽히는 것을 피하려는 현대인의 모습이다.

[23~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다방을

찾는 사람들은, 어인 까닭인지 모두들 구석진 좌석을 좋아하였다. 구보는 하나 남아 있는 가운데 탁자에 앉은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그는 그곳에서 엘만의 「발스 샌티넬」을 가장 마음 고요히 들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선율이 채 끝나기 전에, 방약무인(傍若無人)한 소리가, 구보 씨 아니오—— 구보는 다방 안의 모든 사람들의 ㉠ 시선을 온몸에 느끼며, 소리 나는 쪽을 돌아보았다. 중학을 이삼 년 일찍 마친 사내, 어느 생명 보험 회사의 외고원이라는 말을 들었다. 평소에 결코 왕래가 없으면서도 이제 이렇게 알은체를 하려는 것은 오직 얼굴이 새빨개지도록 먹은 술 탓인지도 몰랐다. 구보는 무표정한 얼굴로 약간 끄덕하여 보이고 ㉡ 즉시 고개를 돌렸다. 그러나 그 사내가 또 한 번, 역시 큰 소리로, 이리 좀 안 오시오, 하고 말하였을 때 구보는 ㉢ 게으르게나마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탁자로 가는 수밖에 없었다. 이리 좀 앉으시오. 참, 최 군, 인사하지. 소설가, 구보 씨.

이 사내는, 어인 까닭인지 구보를 반드시 ‘구보’라고 발음하였다. 그는 맥주병을 들어 보고, 아이 쪽을 향하여 더 가져오라고 소리치고, 다시 구보를 보고, 그레 요새두 많이 쓰시우. 무어 별로 쓰는 것 ‘없습니다.’ 구보는 자기가 이러한 사내와 접촉을 가지게 된 것에 지극한 불쾌를 느끼며, 경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그와 사이에 간격을 두기로 하였다. 그러나 ㉣ 이 딱한 사내는 도리어 그것에서 일종 특의감을 맛볼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뿐 아니라, 그는 한 잔 심 전짜리 차를 마시고 있는 사람들 틈에서 그렇게 몇 병씩 맥주를 먹을 수 있는 것에 우월감을 갖고, 그리고 지금 행복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는 구보에게 술을 따라 권하고, 내 참 구보 씨 작품을 애독하지. 그리고 그러한 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보가 아무런 감동도 갖지 않는 듯싶은 것을 눈치 채자, 사실, 내 또 만나는 사람마다 보고, “구보 씨를 선전하지요.”

그러한 말을 하고는 혼자 허허 웃었다. 구보는 의미못통한 웃음을 웃으며, 문득, 이 웅감하고 또 무지한 사내를 고급(高級)으로 채용하여 구보 독자 권유원을 시키면, 자기도 웅당 몇 십 명의, 또는 몇 백 명의 독자를 획득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그런 난데없는 생각을 하여 보고, 그리고 ㉤ 혼자 속으로 웃었다. 참 구보 선생, 하고 최 군이라 불린 사내도 말참견을 하여, 자기가 독견(獨健)의 「승방비곡(僧房悲曲)」과 윤백남(尹白南)의 「대도전(大盜傳)」을 걸작이라 여기고 있는 것에 구보의 동의를 구하였다. 그리고, 이 어느 화재 보험 회사의 권유원인지도 알 수 없는 사내는, 가장 영리하게, “구보 선생님의 작품은 따루 칭고…….”

그러한 말을 덧붙였다. 구보가 ㉥ 간신히 그것들이 좋은 작품이라 말하였을 때, 최 군은 또 용기를 얻어, 참 조선서원고료(原稿料)는 얼마나 됩니까. 구보는 이 사내가 원고료라 발음하지 않는 것에 경의를 표하였으나 물론 그는 이러한 종류의 사내에게 조선 작가의 생활 정도를 알려 주어야 할 아무런 의무도 갖지 않는다.

그레, 구보는 혹은 상대자가 모델을 느낄지도 모를 것을 알면서도, 불쑥, 자기는 이제까지 고료라는 것을 받아 본 일이 없어, 그러한 것은 조금도 모른다 말하고, 마침 문을 들어서는 벼를 보자 그만 실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어라 말할 수 있기 전에 제자리로 돌아와 노트와 단장을 집어 들고, 마막 자리에 앉으려는 벼에게,

“나갑니다. 다른 데로 갑시다.”

밖에, 여름 밤, 가벼운 바람이 상쾌하다.

- 박태원,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

* 「승방비곡」, 「대도전」: 1930년대에 큰 인기를 얻었던 장편 소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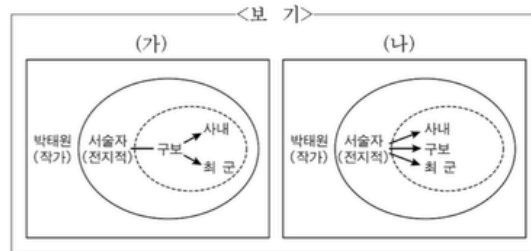
23.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제한된 공간에서의 만남을 통하여 세태를 암시하고 있다.
- ② 현재형 어미를 사용해 인물의 내면을 생동감 있게 제시하고 있다.
- ③ 시간적 순서에 따라 사건을 배열하여 사건의 인과성을 밝히고 있다.
- ④ 직접 화법과 간접 화법을 활용하여 등장인물 간의 심리적 거리를 조절하고 있다.
- ⑤ 섬표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여 읽기 속도에 변화를 줌으로써 그 부분에 주목하게 하고 있다.

24. ㉠~㉥에 나타난 ‘구보’의 심리나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창피스러움과 당혹스러움을 느끼고 있다.
- ② ㉡: 상대방에 대해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③ ㉢: 내키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이 행동하고 있다.
- ④ ㉣: 상대방처럼 되지 못하는 자신을 비웃고 있다.
- ⑤ ㉤: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의 말을 마지못해 인정하고 있다.

25. 위 글은 <보기> (가)의 시점으로 서술되어 있다. ㉤를 (나)의 시점으로 바꾸었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이 사내는 내가 공손한 척 말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 ② 이 사내는 내가 공손하게 말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특의감을 맛보고 있는지도 몰랐다.
- ③ 그 사내는 구보가 공손하게 말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특의에 찬 듯한 표정을 지었다.
- ④ 그 사내는 딱하게도 구보가 공손한 척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특의감을 맛보고 있었다.
- ⑤ 그 사내는 딱하게도 구보가 공손한 척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특의감을 맛보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26. 위 글에 등장하는 세 사람이 미술관에서 우연히 만나 대화를 나누다고 가정할 때, 대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내: 이 작품을 그린 사람이 내 후배라오. 대단하지요? 자, 대충 보았으니 이제 점심이나 먹으러 갑시다. 내가 한턱내지요. ①

최 군: 요즘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저 작품이 화제랍니다. 저 작품 좀 보고 갑시다. 그래야 교양 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②

구보: 글썄요.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린다고 훌륭한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③

최 군: 그래도 이런 작품 하나쯤 거실에 걸어 두면 품이 날 텐데, 얼마면 살 수 있을까요? ④

구보: 아무튼 요즘은 모든 것을 돈으로만 따지려 해서 문제예요. 내가 소설을 쓰는 것은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기 위한 것이지요. ⑤

23	24	25	26
㉠	㉡	㉢	㉣